

## 농촌노인의 복합만성질환 경험

정은옥\*, 안옥희\*\*

(\* 가천보건진료소,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연구목적 : 일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겪어온 만성질환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여 복합만성질환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절차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 농촌노인의 복합 만성질환 경험은 만성질환 다가오기, 발견하기, 헤쳐나가기, 방지하기, 다른 질환 발견하기, 좌절하기, 안고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오랜 기간 생업으로 농업에 종사함은 농촌환경, 작업자세, 작업시간의 측면에서 건강에 부적합한 비효율적인 상황의 연속이며 만성질환의 발생이 쉽고 복합만성질환의 상태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겪어내면서도 가사를 감당해야만 하였으며,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통증을 방지하고 몸을 돌보지 못함으로써 질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질환에서 벗어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부적당한 약물복용과 민간요법을 시행해 보나 효과 없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병원을 전전하고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도 하며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보고, 보건진료소의 도움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겪어야하는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힘겨움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약물의 오남용과 추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질환을 방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는 동안 또 다른 질환이 발생되고 불편함과 통증은 지속되었으며, 질환의 재발가능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은 더 가중되어 자기관리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체념하게 되는 좌절의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 중에 참여자들은 질환의 고통을 삭이고 감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한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나름대로의 식이조절과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노력한다. 다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질환을 관리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소원하였으며 자신이 처한 운명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질환과 더불어 질환을 안고 살아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 복합만성질환을 겪어나가는 과정을 규명한 연구로서,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